



# 국내·외 축산소식

## 충북 보은군 농업 벤치마킹 최적지로 급부상

보은군이 선진농업 벤치마킹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충북도 한우능력 평가대회 3년연속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휩쓸었고 보은군자체 속리산 황토탄우 조량우랑 전용브랜드 사료 개발과 고구마 전용비료를 사용한 황토 밭고구마, 일본에 수출하는 방울토마토, 양재동 물류센터에서도 호평 받는 속리산 황토사과 등의 품목이 전국 유명 브랜드로 급상승 하고 있어 우수한 농축산 선진기술을 벤치마킹 하려는 농가들이 전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에는 군산시 농업인정보화연구모임 44명이 연간 10만 그루의 난을 재배하는 산외면 백석리 김학제 씨 파란농원과 생산한 방울토마토를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 외속리면 구인리 이우직 씨 방울토마토 농장을 견학하고 자가 사료를 배합하고 속리산 황토 조량우랑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탄부면 매화리 송지현 씨 농장은 충북한우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한우 농가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1일에는 괴산군 한우연구회 35명이 마로면 갈평리 마로한우영

농조합법인과 탄부면 매화리 송지현 농가를 방문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은군은 3대강의 발원지로 맑고 깨끗한 공기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250m의 중산간지에서 온도격차가 크고 과육이 치밀하며 빛깔과 육질좋은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면서 “웰빙 식품을 선호하는 전국의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보은군의 청정농업과 신기술을 배우려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 [미국] 영국의 카트리나 구호식량, 광우병 위험 때문에 사용 금지

영국이 보내온 카트리나 수재민들을 위한 구호 식량들이 미국 공군 기지에 묶여 있다. 미국은 영국의 광우병 사태 이후 영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영국이 보내온 구호 식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칸사스주의 잭슨빌 공군기지는 카트리나 수재민들을 위한 국제 구호품들이 들어오는 기지이며, 지금까지 1,842톤의 구호품들이 도착했다.

미국 정부는 영국산 쇠고기 뿐 아니라 닭고기 수입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AP(9/22/05))

## 네팔 '소똥' 바이오가스 각광

네팔 농촌의 소똥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지원프로그램(BSP)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 사례로 각광받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축산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네팔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똥을 연료로 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강제 규정하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고가의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선진국에 판매되고 있는 것.

네팔의 75개 행정구 가운데 66개에서 실시되고 있는 BSP는 최근 환경 친화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아쉬덴 상(Ashden Award)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이미 모범 사례로 확산되고 있다. 네팔은 BSP에 따라 소똥을 전국 14만 가구의 주방 연료로 사용하면서 40만t의 목재, 80만l의 등유를 절감하는 동시에 60만t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똥은 연소시 화석연료와는 달리 온실가스 효과에 전혀 영향이 없다. 이 바이오가스는 소똥과 함께 나오는 박테리아가 각종 폐기물을 분해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의 상품처럼 국가간에 서로

사고팔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세계은행은 BSP에 의해 절감된 5만달러 상당의 배출권을 구입할 계획이며,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의 많은 은행들도 배출권 구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럽바이오매스산업협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매스는 선진국 발전 수요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벼·보리 이젠 소도 먹어요”

‘쌀과 보리, 이젠 소가 먹는다.’

소에게 먹이는 사료용 벼와 보리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남 장흥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가 벼 줄기에 낱알이 달린 상태인 일명 ‘총체(總體) 벼’를 시험 재배해 소에게 사료로 먹이고 있다.

이삭이 달린 상태로 벼짚을 먹이기 때문에 양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데 필수인 조사료로 안성맞춤이라는 게 축산인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소는 되새김질 동물로 24시간 씹어야 하기 때문에 벼짚이나 마른 풀 등 조사료를 먹어야 한다.

때문에 한우 사육농가는 비싼 돈을 주고 조사료용 벼짚이나 건초를 사들였고 이는 만만찮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이 총체 벼는 식용으로는 밥맛이 떨어지지만 농약을 치지 않고 키워 품이 덜되고 수확량도 일반벼보다 20~30%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남 나주시는 올 여름에 보리밭 590여ha에서 거둬들인 사료용 총체 보리 1만 4000여t을 젓소에 먹

여 청정 보리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 청정 보리 우유에는 '베타글루켄'이 많이 들어 있어 성인병 주범인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국내 굴지의 유가공업체인 N유업이 관내에 대규모 우유생산 시설을 이전 신축기로 확정함에 따라 이 업체와 공급계약을 통해 총체보리 재배량을 늘려 농민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강진군도 올해 주민들의 호응에 따라 총체보리 사료화 지역을 군동·칠량면 등으로 늘리고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200ha에서 사료용 보리를 수확했다.

(서울신문)

### 美상원 日쇠고기 수입 금지법안 표결

미국 상원은 20일 일본이 19개월전 광우병 파동 때문에 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일본의 고베 쇠고기도 미국땅에 들여올 수 없다는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상원의원들은 이 표결은 전통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고객이었던 일본에 대한 실망의 표시라고 말했다. 미국 축산업계는 일본시장에 폐쇄됨에 따라 매달 1억달러씩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과 결의안은 하원이 통과시킨 농무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1천억달러 자금지원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상하원은 관련 법안과 결의안들을 통합해 최종 법안을 만드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 '굴 먹은 도새기' 연말 생산 개시

감굴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굴 찌꺼기를

먹인 기능성 돼지고기가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제주도는 감굴 찌꺼기를 이용한 '감굴 기능성 도새기(돼지) 생산기술 개발사업'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4농가를 선정, 사육돼지 3천여마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실용화사업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실용화사업을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부터 '굴 먹은 도새기'를 생산, 소비자들에게 공급해 이를 제주의 명품 축산물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다.

이어 2006년부터 이 사업을 모든 양돈농가로 확대하고 감굴 찌꺼기사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저장탱크 시설, 사료공장 확충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제주도가 1년여의 시험을 거쳐 지난 5월 개발에 성공한 '굴 먹은 도새기'는 기능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 두께가 일반 돼지와 흑돼지에 비해 12~23% 얇고 고기의 성분중 단백질과 아미노산, 비타민 B1, B2 함량은 높은 반면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돼지고기를 시식한 소비자들은 굴 먹은 돼지고기의 맛이 쫄깃쫄깃하고 고소할뿐 아니라 색다른 향이 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는 '굴 먹은 도새기'를 지난 1월21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 [EU] 육류 중 돼지고기 가장 선호

최근 유럽 통계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서는 EU에서 2004년 돼지고기 이외의 식육 1인당 소비량이 쇠고기가 전년대비 0.5% 감소한 20kg, 닭고기가 1.4% 증가한 22.2kg이라고 집계했다. 반면 돼지고기 소비량은 쇠고기나 닭고기 소비량보다도 약 2배가 많은 43.4kg으로 조사돼, EU에서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과 2001년에 발생한 광우

병이 쇠고기 소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주간양돈자조금]

## 하림, 북한에 축산농가 설립 추진

北 “좋은 아이디어..구체적인 논의 동의”

북한에 곡물사료와 축산분뇨 비료화 기술을 지원하고 축산생산물을 남한에 반입하는 형태의 협력사업이 본격 논의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6일 “닭고기 생산업체인 하림(024660)의 김홍국 회장과 함께 14일 평양에서 북한의 최영진 건설건설공업성 부상과 만나 이런 방안을 협의했다”며 “북측이 좋은 아이디어라며 곧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하림은 사료원료 곡물을 들여와 유휴 축산시설 가동율을 높이고, 생산된 축산물은 남한에 가져가거나 일부는 북한에서 소비한다.

박 차관은 “남북이 이달 말 개최하기로 합의해놓은 11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도 남북 당국간에 축산 분야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 [WHO] 亞 조류독감 막으려면 사육방식 바꿔야

아시아에서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사람과 가금류의 접촉이 잦은 구식 동물 사육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1일 지적했다.

오미 시게루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장은 이날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누벨 칼레도니섬 수도 누메아에서 열린 WHO 서태평양 연례회의에서 조류독감은 사육장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서구식 사육법은 잘 통제되고 있으며 오리, 닭과 인간은 뒤섞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0여개국 보건장관 및 관계자들이 이날 회의에 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종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WHO의 5년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 계획안은 각국 정부에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을 줄이기 위한 입법안 마련과 전염병에 대한 조기 대응 체제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누메아< 누벨칼레도니섬 > 로이터.AP=연합뉴스)

## 황우석 돼지농장, 홍성에 남는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실험용 무균돼지농장이 충남 홍성에 남게될 전망이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양돈농장에서 황우석 교수팀의 이병천(40)교수와 농장주 박모(44)씨, 신규 임차인인 매산양돈영농조합 대표가 협의한 결과 앞으로 2~3년 동안 황 교수팀이 농장을 계속 쓰기로 합의했다. 도는 황 교수팀이 농장 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자마자 담당자를 홍성으로 급파, 매산양돈영농조합측을 설득해 농장을 황 교수팀에 양보하도록 했다.

황 교수팀이 사용해 온 홍성군 구항면 400여평의 양돈농장은 축산업자 김모씨가 농장주 박씨로부터 2002년 11월부터 1년 단위로 임차한 곳이며 황 교수팀은 이 농장에서 돼지에 복제수정란을 이식한 뒤 분만 하루 전 돼지를 서울대로 이송해 실험에 사용했다.

그런데 최근 농장주 박씨가 매산양돈영농조합과 5



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김씨에게 계약만료일인 11월 8일까지 농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해 황 교수팀이 이전부지 물색에 나섰다. 한편 축산업자 김씨는 복제수정란을 이식할 돼지를 선별하고 이식시기를 황 교수팀에 알려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든 연구내용을 비밀에 부쳐도와 홍성균조차 김씨의 농장에서 황 교수팀의 연구가 이뤄지는지 알지 못했다. (연합뉴스)

### 영천 브루셀라병 청정화사업 첫 착수

경북 영천축협이 국내 최초로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 사업에 나서 축산농가 등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천축협은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원하는 30마리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全) 두수 채혈을 통해 100%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만 가입시켜 전염되지 않게 외부차단 및 종합 방역관리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영천 화남면 신희리 도향농장(대표 권영환)이 첫 청정농장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청정농장 현판식을 갖고 관련 규약 준수 등을 서약했다.

축협은 올해 확보한 사업비 5천200만원을 투입해 50농가, 3천500마리를 관리대상으로 잡았다. 영천축협과 시농업기술센터는 2010년까지 매년 3천마리 이상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해 소 브루셀라병 완전 청정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축협측은 "소 브루셀라병이 현재까지 살(殺)처분 정책과 예방접종론의 와중에서 뚜렷한 정책적 대안이 없어 사육농가와 함께 청정화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은 정책당국으로서도 고민거리인데 이번 사업의 성공 여부가 축산농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영천지역에서는 2천14농가에서 2만133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본] 항생제 사용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

일본 정부가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일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품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브라질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일부 수입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항생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카에페르 아비쿨투라(Kaefer Avicultura)라는 브라질의 닭고기 가공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사용금지된 항생제 성분 0.06ppm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인체 위해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이 회사 제품의 하역을 일시 중지 시켰다.

브라질 보건부는 그러나 검역 결과에 관계없이 항생제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제품 1천668kg을 현지에서 폐기처분하거나 되돌려 보내줄 것을 일본 정부와 수입업자에게 요청했다. 브라질은 조류독감 발생 이후 일본 정부가 지난해 태국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최대의 대일(對日) 닭고기 수출국으로 떠올랐으며, 올들어 지난 1~7월 사이 일본의 전체 닭고기 수입량 23만7천t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21만2천t이 브라질산이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㉔